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STORM KEEPER'S ISLAND

가제 : 아란모어

저자 : Catherine Doyle

출판사: Bloomsbury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8년 7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 다섯 개 출판사의 경매를 거쳐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 독일과 수십 만 달러 규모로 판권 계약 체결

★ 아일랜드 서쪽, 외딴 섬에서 되살아난 고대 마법과 모험을 다룬 2부작 소설

북아일랜드 북서쪽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 아란모어에서 대대로 바다와 싸우고 폭풍을 이겨내며 살아온 집안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의 거센 힘을 곳곳이 견디며 그 속에서 꺼져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용맹한 구조대로 활약해 온 보일 집안은 피온의 아버지 이후로 그 명예로운 활동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한다. 그러나 다 쓰러져 가는 낡은 해안가 집에서 양초를 만들며 꺼져가는 기억과 생을 홀로 붙들고 있는 할아버지와 함께 여름을 보내려고 피온과 누나 타라가 아란모어에 도착한 바로 그 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숨죽인 채 웅크리고 있던 섬이 깨어난 것이다. 열한 살 소년, 피온이 배에서 내려 발을 디딘 순간 시작된 일이었다.

피온의 엄마와 아빠는 아란모어에서 나고 자랐다. 하지만 대를 이어 해양 구조대로 일하던 아빠가 파도에 휩쓸려 영영 돌아오지 못하자 엄마는 섬을 떠났다. 관광객들과 뿌연 먼지로 가득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좁고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피온은 엄마, 누나와 함께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엄마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기운이 빠지고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피온이 바로 옆에 있어도 유령처럼 느껴질 만큼 정신은 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변해갔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린 엄마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두 남매를 아란모어로 보냈다. 1년 전에는 타라 혼자서 다녀온 할아버지 집에서 여름을 보내고 오는 동안 혼자 재충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평소에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보다 방에 틀어박혀 게임하고 뽕구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피온은 엄마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아란모어는 섬이니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데 피온은 물, 특히 바다를 무서워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고집과 설득, 협상은 다 통하지 않았고 피온은 어쩔

수 없이 사춘기 심술이 극에 달한 누나와 둘이서 아란모어 행 페리에 몸을 싣는다. 울렁대는 파도 위에서 울렁이는 속을 가라앉히느라 한참을 고생한 끝에 마침내 배는 낮선 항구에 도착하고, 주저하며 배에서 내린 피온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어서 와라, 집에 왔구나.” 처음 들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묘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린 것이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에는 벽마다 크고 작은 선반이 줄줄이 붙어 있고 그 위는 물론 벽난로 위, 책상, 책장마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양초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특이한 것은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각양각색인 초에 짙은 문구가 적혀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 이름이나 장소, 날씨, 파티나 모임처럼 행사가 있었던 날의 기억이 세세하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주 오래 전’과 같이 모호한 글귀가 붙어 있기도 했다. 피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할아버지는 태어나 처음 본 손주를 반갑게 맞이했다. 보일 집안 남자들은 전부 바다에서 육지만큼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물이 너무 무섭다고 털어놓는 피온에게 할아버지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하지만 섬에서 지내야 하는 이상 물가에 아예 안 갈 수는 없으니 노력은 해보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은 피온은 절대 바다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기로 마음 먹는다. 때마침 섬에 사는 어느 소녀와 우연히 마주친 피온은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란모어는 예로부터 마법에 걸린 섬이라는 것이다.

먼 옛날, 다그다와 모리건이라는 두 마법사가 아란모어 섬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다 마침내 다그다가 승리를 차지한다. 섬 전체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그다는 놀라운 마법의 힘을 여러 개로 나누어 아란모어 섬 곳곳에 숨겨둔다. 그 중에서도 ‘바다 동굴’로 불리는 비밀의 장소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이 남아 있어서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준다고 피온이 만난 소녀는 알려주었다.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 섬을 찾아보기로 한 피온의 용기 있는 결심은 뜻밖의 사건들로 이어지고 피온은 섬에 도착했을 때 들었던 의문의 목소리가 결코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법의 기운으로 살아 숨쉬는 섬, 아란모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피온의 존재로 인해 깨어나고 이제 피온은 보일 집안의 유일한 후손으로써 어두운 힘을 다시 가라앉혀야만 가족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과연 피온은 바다와 거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빠가 못다한,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오래 전 패배한 마법사의 어두운 기운이 스멀스멀 뻗치고 피온의 싸움은 점점 더 극한으로 향한다. 총 2부작으로 완성될 이 이야기의 후속 편은 2019년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도일(Catherine Doyle)은 아일랜드 서부 해안가에서 태어나 아일랜드 국립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출판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목 : I HAVE LOST MY WAY!

가제 : 길을 잃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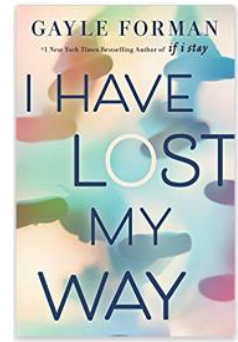
저자 : Gayle Forman

출판사: Viking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8년 3월 2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If I Stay』의 작가가 이야기하는 우정의 힘, 공감의 의미
- * “작가는 우정과 사랑, 상실, 구원의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들려준다. 두려움에 휩쓸리고 자신의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한 적이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름다운 러브송이다.” – 내셔널 북 어워드 우승작 『Brown Girl Dreaming』의 작가 재클린 우드슨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프레야, 사랑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사랑한 하룬, 그리고 의도치 않게 불행 속에 고립되어 있다 겨우 빠져 나온 나다니엘, 세 사람이 어느 목요일 하이드파크에서 만난다. 약속 같은 건 없었다. 세 사람이 살아온 인생도, 처해 있는 상황도 겹치는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그 날 그 시각에 세 사람 다 길을 잃었고 발길이 닿은 곳은 하이드파크였다. 프레야, 하룬, 나다니엘이 잃은 길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아닌 지나온 삶, 다가올 삶의 길이였다.

프레야에게 그 날은 원래 공원 같은 곳에 돌아다닐 여유는 상상할 수도 없이 흘렀어야 했다. 새 앨범 녹음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3주 내내 녹음실에 틀어박혀 같은 노래, 같은 구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이번 주에는 녹음을 다 마치고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음반 발매일만 기다릴 예정이었다. 이제 열아홉 살, 프레야의 인기는 그리 거세지도 않지만 영 조용하지도 않았다. 공연을 하면 객석은 빈 자리 없이 채워지고 일상이든 가수 활동을 하는 동안이든 트위터에 새로운 소식을 알리면 몇 초 만에 우수수수 반응이 쏟아지지만 버스나 지하철은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인기였다. 불과 몇 주 전에 새로 촬영한 프로필 사진이 세련된 포스터로 제작되고 소셜미디어며 기획사 벽면에 프레야의 새 앨범이 화려하게 광고를 시작했는데 며칠 전부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특정 음을 딱 집어서 부르는 건 되는데 멜로디를 이어서 부르려고 하면 목구멍이 보이지 않는 뭔가에 턱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급해진 회사에서 한 번 검진 받는 데만 수백 만원씩 받는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내서 줄줄이 예약을 잡아줬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문제의 목요일, 프레야는 오전 일찍부터 벌써 여덟 번째로 그런 의사와 마주 앉았다. 역시나 아무런 성과는 없었고 아침부터 ‘나는 길을 잃었네’라는 문장이 후크송처럼 귓가를 떠나지 않았던 프레야는 무작정 공원으로 향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능할 수가 없었다.

하룬은 목요일 아침, 아버지와 이슬람 예배당에 나가기 전 깨끗이 목욕을 할 때부터 자마리우스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그의 마지막 문자메시지는 반박할 여지도 없

이 간결하고 명확한 이별 통보였다. 허튼 소리나 그냥 해보는 말 같은 건 절대 못하는 자마리우스의 성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하룬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녁이면 친척들과 사촌들이 모두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내일이면 멀리 떠나야 하는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자마리우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아들 하나만 믿고 있는 부모님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지언정 그렇게 떠날 수는 없다고 하룬은 내내 생각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이후 뉴욕 곳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낼 만한 비밀 장소를 찾아 다녔고 하이드파크에도 늘 몰래 만나던 곳이 있었다. 하룬은 아무 답이 없는 자마리우스에게 그곳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아들이 얼른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과 차가운 자마리우스, 하룬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은 그 때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이드파크는 워싱턴 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뉴욕으로 떠난 나다니엘의 첫 번째 목적지였다. 지난 2주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도 비행기 좁은 좌석에 구겨져 앉아 있던 내 눈도 부치지 못한 나다니엘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동네 도서관에서 훔쳐온 가이드북에 나온 대로 하이드파크를 찾아 나섰다. 원래 아버지와 함께 오자고 약속했던 곳, 삶이 이토록 어처구니없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줄은 상상도 못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우리 둘이서 꼭 가보자’며 많은 목적지를 정했는데 그 중 단연 중요한 곳으로 꼽힌 곳이기도 했다. 나다니엘은 연결되지도 않는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게 거의 다 왔다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복잡한 거리, 떠난 마을과는 단 한 군데도 비슷한 곳이 없는 대도시의 인파를 뚫고 마침내 공원 입구에 들어선 나다니엘은 묘한 친밀감을 느낀다. 그 때 드넓은 공원 저쪽에 어떤 여자가 나지막한 다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광경이 보였다. 그 아래 서있던 남자는 정통으로 여자와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이제 막 피어나려던 가수로서의 삶이 위기에 처한 프레야, 독실한 종교와 막대한 기대 때문에 숨 막히는 집을 나와 금지된 사랑을 되돌리려 애쓰는 하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상이 아닌 아버지와 살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나다니엘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이드파크에서 만나 하루를 함께 보낸다. 이야기는 세 사람의 과거를 번갈아 가며 조금씩 들려주고, 현재 시점에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큰 문제 때문만은 아니며 긴 세월 어떤 아픔과 기억이 내면에 커켜이 쌓여 왔는지 하나씩 펼쳐서 보여준다. 처음 만난 서로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입밖에 내지 못했고 혼자서도 마주할 생각조차 못했던 아픔을 털어 놓으며, 세 사람은 잃어버린 삶의 길에서 각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한다. 뜻밖의 진한 우정이 선사하는 용기와 힘, 세상의 시선과 잣대와 상관없이 자신이 진정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의 고투를 우아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게일 포먼(Gayle Forma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If I Stay』를 쓴 작가다. 다른 작품으로는 『Where She Went』, 『Just One Day』, 『Just One Year』, 『I Was Here, and Leave Me』 등이 있다.